

## ‘아시아 문화’ 광주서 활짝 꽃피다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열린 문화전당 개관식에서 ‘창조의 나무’에 활짝 꽃이 피는 미디어 퍼포먼스에 맞춰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임창순(왼쪽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박주선 국회의원, 윤장현 광주시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교안 국무총리, 아흐메드프 오즈베키스탄 문화장관, 방선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 이낙연 전남지사, 장병완 국회의원.

‘세계 문화 용광로’ 문화전당 공식 개관식 ... 황교안 총리·문재인 대표 등 참석  
5개국 문화장관 회의의 ‘2017년 한·중·동아시아 문화관광 축제’ 공동 개최 합의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광주의 핵심인 프라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5일 공식 개관식을 열고 광주·전남지역민들을 맞이했다. <관련기사 2·3면>  
한·중·동아시아 5개국 문화장관은 이날 2017년 ‘한·중·동아시아 문화관광 축제’를 여는 것을 비롯해 작가교류, 문화·기록 유산 복원 및 활용방안에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문화전당은 ‘문화 광맥’인 중앙아시아 신화·설화 등 문화자원을 만화, 영화, 공연예술 등의 창작재료로 활용할 수 있

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날 개관식은 황교안 국무총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전문가, 중앙아시아 5개국 문화장관 등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전당 아시아 예술극장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표, 주승용 최고위원, 박재하 광주시장 위원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무소속 천정배·박주선 의원 등 정치인도 동참했다. 황 총리는 축사에서 “광주는 이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문화예술을 통해 아시아는 물론 세계와 소통하게 된다”며 “정부도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개관사

에서 “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를 세계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와 아시아 문화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개관 주제 공연에 이어 주요 참석자들은 문화장조원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문화장조원 복합1관에서는 세계적인 뉴미디어 아티스트인 로지 이케다(Ryoji Ikeda)의 작품 ‘테스트 패턴 no.8’(Test Pattern no.8)이 눈길을 끌었다. 가로 50m와 세로 10m의 크기로 투사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초대형 미디어 설치 작품이다. 아시아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문화정보원도 일제히 개관 콘텐츠(공연·전시 등)를 선보였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 등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전당이 광주를 기반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복합문화 예술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했다.

###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문화전당 개관을 기념해 열린 제2회 한·중·동아시아 문화장관회의에서는 문화전당의 국제적 위상을 다지고 창작 원천을 확보하는 성과가 도출됐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문화교류의 실전을 약속하는 ‘한·중·동아시아 장관회의 공동합의문’이 나온 것이다. 한·중·동아시아 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오는 2017년 한·중·동아시아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에서 번갈아 문화관광축제를 여는 조항도 포함됐다. 중앙아시아 문화축제는 문화전당에서 열린다.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자리에 7000억원(부지 보상비 포함)을 들여 건립된 문화전당은 문화예술 기관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전체 부지면적이 13만4천 815㎡(전체면적 16만1237㎡)에 달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새정치 호남 의원 오늘 회동 “일부는 탈당 결심하고 참석”

주승용 “文대표 성토장일 것”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의 26일 회동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전언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호남 국회의원 회동에는 일부 주류 성향 의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참석할 예정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주승용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25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회동을 앞둔 호남 국회의원들의 기류를 전달했다.

주 최고위원은 “지난주 광주에서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연대와 호남의원 출대 발언에 대해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면서 “이날 회동은 문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을 전하는 성토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안·박 연대는 사실상 최고위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대표에게 쓴 소리를 한 것을 두고 ‘공천권을 노리는 것’이라

고 폄하한 것은 호남 의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최고위원은 “지도부 거취 문제를 최고위원과 한 마디 협의 없이 결정,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며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들을 물러나라는 것은 초법적 요구”라며 물러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주 최고위원은 “호남 민심 복원 없이는 내년 총선 승리가 힘든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호남 국회의원 가운데는 탈당을 결정한 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천정배 의원의 국민정당 추진위원회는 신당 세력의 통합과 새정치연합 현역 국회의원들의 합류 시기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편, 비주류 핵심 인사들은 이날 밤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만나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 공동지도체제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오늘 국회의원사당서 영결식

## 9선 의원 YS, 애도 속 ‘마지막 등원’

2만명 참석...박대통령은 유동적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이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사당에서 열렸다. 행정자치부는 유족과 협의의 거처 영결식과 안장식, 운구 절차 등을 결정해 25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영결식에는 유족과 친지, 장례위원, 국가 주요인사, 각계 대표, 해외 조문사절 등 최대 2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14일 순방 출국 전부터 감기 증세가 있었던 데다 타기와 필리핀, 말레이시아로 이어지는 열흘간의 다자회의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건강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이다.

영결식에 앞서 오후 1시25분 운구 행렬이 빈소를 출발한다.

운구행렬 입장과 함께 시작되는 영결식은 방승인 김동건씨가 사회를 맡아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에 이어 장례집행위원회 장종섭 행사부 장관

의 약력보고와 장례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의 조사 순으로 이어진다.

국가장인만 4대 종교 의식을 모두 포함했다. 고인과 유족의 종교인 개신교 의식을 시작으로 불교·천주교·원불교 의식 순으로 엄숙하게 거행된다.

김 전 대통령의 유해는 9선 의원을 지내며 피와 땀이 서린 국회의원사당을 뒤로 하고 장지인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한다. 현충원으로 이동하는 길에 상도동의 사저와 기념도서관을 들른다.

사저에서는 유족이 영정을 들고 고인의 체취가 남은 공간을 돌아 나온다. 공식 노제와 추모제는 유족과 협의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안장식은 서울현충원에서 오후 4시2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폭 킨 마약사범 무더기 적발 ▶6면  
문화전당 효과 동명동이 뜬다 ▶14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www.jepa.kr/FTA
생명향, 청년이 돌아오는 전상

## 전남FTA활용지원센터 지원사업안내

전남FTA활용지원센터는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FTA시장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컨설팅**  
FTA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사후관리까지 FTA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 교육**  
급변하는 최신 무역동향 및 FTA 정보를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FTA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설명회**  
최신 FTA 정보를 권역별(시·군별) 산업특색과 FTA체결국별 특색을 고려하여 생생한 FTA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FTA활용지원 OK **1380**  
 전라남도 FTA활용지원센터 **061-288-3831**  
 전라남도 지역경제과 **061-286-4170**

전라남도  
Jeolla Namdo

전라남도  
Jeolla Namdo